한라시터뷰 제주출향해녀 강영희씨

"제주여성 자긍심으로 난관 극복"

열여덟살 제주 떠나도 물질 거제도에 정착 명맥 이어가 제주인 자부심 기부 등 활동

참된 제주여성상 모범사례로 세계제주인대회서 주제발표

제주여성의 참된 여성상을 다른 지역에 널리 알리고 있다는 평을 받아 세계제주인대회 개막식에서 주제발표를 한 강영희씨.

"제주여성의 강인한 정신력과 생활력으로 어려움 극복했어요. 제주는 살아생전 고향이고 죽어서도 영혼의 고향인 곳이지요."

18세의 나이에 제주를 떠나 전국을 떠돌며 물질을 오던 소녀가 어느덧 일흔이 넘어 출향해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산증인이 됐다. 수십년 동안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기부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제주 출향해녀의 긍지와 더불어 여성 리더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는 강영희(73) 여사가 그 주인공이다.

1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제주인대회에서 강영희 여사를 만났다. 이날 강 여사는 세계제주인대회 개막식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했다. 제주 출향해녀로서 제주여성의 참된 여성상을 다른 지역에 널리 알리고 있다는 평을 받아 주제발표자로 선정된 것이다.

개막식 주제발표에 앞서 기자와 만난 강 여사는 "출향해녀로서 제주는 살아생전에 고향이고 죽어서도 영혼의 고향인 섬으로 세계제주인대회에 제주 출향해녀가 함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회로 출향해녀와 더불어 세계에 흩어져있는 제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타 지역에서 물질을 하던 중 제주여성이라고 홀대받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제주여성의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고 싶어 일부러 궂은 일을 도맡아 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에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출향해녀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물질에 나서는 현실이었다"며 "그러나 그들 모두 제주여성으로서의 강인한 정신력과 생활력으로 당시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릴 적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제주를 떠나 타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온 사람이 출향해녀"라며 "제주인, 제주도의 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제주도를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희 여사는 서귀포시 표선면 출신으로 1964년 4월 돈을 벌기 위해 육지로 향했고 전국을 떠돌며 물질을 이어오다 거제지역에 정착했다. 이후 거제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 전달 등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 20년간 서부경남제주도민회 회장, 부회장을 역임하며 불우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매해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타 지역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 여성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활동지인 서부경남에서 '거제도 30인 인물', '경상남도 100인 인물'(1996)에 선정 및 '장목면 민상'(2010)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해 열린 제39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에서는 봉사부문 수상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매년 1억 넘는 예산 투입 신고포상금 제도 있지만 2015년 이후 지급은 전무

서귀포시 중산간이나 오름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일부 시민들이 몰래 내다버린 방치폐기물 수거에 매년 1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신고된 방치폐기물의 불법 투기자가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지만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5년동안 지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산간, 오름, 농로변 등 시 전역에 방치된 폐기물을 조사·정비중이다. 그 결과 최근까지 읍면동 224곳에서 198t의 건설·영농·혼합(생활) 폐기물을 정비했다. 이들 방치폐기물 정비에 투입된 예산은 1억6000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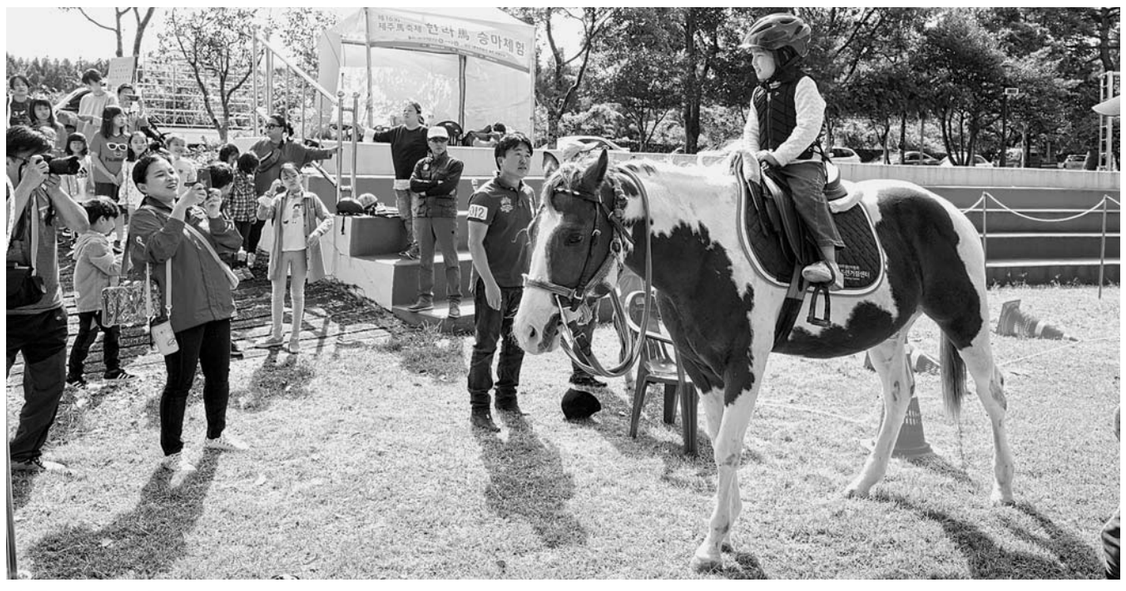
시는 앞서 2017년에는 8300만원을 들여 273t의 방치 폐기물을, 2018년에는 1억1000만원을 들여 360t을 수거했지만 방치폐기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비하는 한편에서 또 일부에서 몰래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제주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환경부고시 등에 근거해 환경오염행위 위반사실을 확인한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액의 10%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2015년 이후 지급된 포상금이 단 한 건도 없다. 지역 특성상 이웃이거나 아는 사람들이 많아 신고에 소극적이고, 신고가 들어와도 폐기물을 증거로 무단투기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오름 등 인적이 드문곳에 버려진 폐기물.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특성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가 미미해 몇 년동안 신고포상금이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마 승마체험 지난 12일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열린 제16회 제주마축제에서 방문객들이 제주마 승마체험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내년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3곳 선정

제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공모에서 제주시 칠성로상점가, 동문재래시장, 서문공설시장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은 바우처의 지원 한도 내에서 마케팅, 상인교육, 인력(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지원 등 상인회 자율적으로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20년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난 7월 제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6개 시장 18개 사업을 신청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10월 초 최종 3개 시장(칠성로상점가 6000만원, 동문재래시장 4000만원, 서문공설시장 3000만원)이 선정됐으며, 국비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대규모 점포와 비교해 열악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장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사업 추진해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제주시는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위해 당초 목표보다 상향된 80개 농가를 조성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사료),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깨끗한 축산농장은 이달 현재 총 47개(돼지 26, 닭 11, 한우 6, 젖소 4) 농가가 지정됐다.

고대로기자

서귀포지역 4대 불법 주정차 만연

6개월간 모두 1666건 단속

서귀포시 지역에서 4대 불법주정차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식 개선활동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13일 밝혔다.

4대 불법주정차 행위는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등에 주차를 하는 행위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4대 불법주정차 및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이래 단속건수는 총 1666건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4월140건, 5월 336건, 6월 339건, 7월 323건, 8월 245건, 9월 283건 등 불법주정차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4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횡단보도 위 440건(26.4%), 버스정류소 415건(24.9%), 교차로 모퉁이 191건(11.4%), 소화전 주변 67건(4.0%) 등 1113건(66.8%)이다. 4대구간 외에도 안전지대 201건(12.1%), 기타 352건(21.1%) 등이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해 단속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단체, 자원봉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제11회 제주도 康氏 한마음 체육대회

결실의 계절을 맞아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조상의 얼을 되살리고 崇祖睦族의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康氏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오니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9년 10월 20일(일) 10:00
▣ 장 소 : 표선생활체육관 (표선면 하천리 소재)
▣ 경기종목 : 제주도내 康氏 종친
▣ 연 락 처
· 도 종친회 총무 기종(010-3619-9651)
· 도 청년회 총무 기영(010-5746-1111)

※ 행사차량(버스) 지원 : 제주시, 애월, 서귀포, 성산

康氏 제주도 종친회장 왕 수
제주도 청년회장 지 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점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써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10월 20일(일) 08:00
장소 ·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 서귀포팀 :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인 원:선착순 40명
•비 용:10,000원(교통비및 산악보험)
농협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준비물 :도시락,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산행코스:성읍2리 입구- 모지오름-따라비-갑마장길-대륙산-정석항공관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고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대 산악부 가입
1999년 8월 20일 네팔 히말라야 초호유(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시사팡마(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네팔 히말라야 로체(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원2정 44일간 세계최단기록 성공
2005년 5월 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네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셔브롬 1봉(8,068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셔브롬 2봉(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네팔 히말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베링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훈장 맹호장수훈(체육훈장 맹호장 제51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 봉

•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사무국장(010-9838-6552)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 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12월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축 취업 | 7월 23일 종료과정 21명중 17명 취업 미취업자 취업 협의중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